

美 신차 판매, 현대·기아차만 '상승'

미국의 자동차 신차 판매가 5개월 연속 후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가 SUV를 전면에 내세우고 점유율 늘리기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감소한 158만7336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신차 시장은 올 들어 5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5월 신차 판매가 줄어든 원인은 영업일수 1일 감소와 주요업체들의 판매 인센티브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완성차업체가 전년 동

5개월 연속 역성장...대부분 업체 판매 감소

현대·기아차, SUV 실적 호조...점유율도 ↑

기 대비 판매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폭스바겐그룹, 토요타, 크라이슬러와 함께 판매실적 증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5월 미국시장에 전년 동기(12만5518대)에 비해 2.4% 증가한 12만8496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점유율 역시 전년 동기 7.9%에서 5월 8.1%로 늘었다.

현대차는 5월 미국시장에 3.6% 증가한 6만8434대, 기아차는 1.0% 증가한 6만622대의 차량을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 쉐라페가 1만3300대,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6273대 판매되며 실적 호조를 이뤘었다. 법인판매 감소, 소매판매 증가, 제네시스 회복세 지속 등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폭스바겐그룹의 판매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토요타는 3.2%, 크라이슬러는 2.0% 증가세를 보였다.

혼다(전년 동기 대비 -4.9%), 포드(-4.1%), BMW(-3.1%), 닛산(-1.7%), 제네럴모터스(-1.2%), 다임러(-0.5%) 등은 모두 판매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적별 점유율은 한국 2사, 독일 3사가 각각 전년동월비 0.2%p씩 상승한 한편 미국 빅3과 일본 빅3는 각각 0.4%p, 0.1%p 하락했다.

뉴시스



“외국인 여행객, 3일 이상 체류...평균 653 달러 지출”

제주항공, 여행객 1056명 대상 기내 설문조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은 3일 이상 머물며 쇼핑과 미식여행을 즐기고 숙박과 항공료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는 653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제주항공은 지난 5월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한국여행을 마치고 제주항공을 이용해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복응답)의 88%가 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쇼핑'(59.3%)과 '미식여행'(56.3%)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행객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한국을 여행하며 사용한 순수 여행경비는 1인당 평균 653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금액별 비중을 살펴보면 '300~500 달러'가 27.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500 달러 이하' 20.5%, '500~700 달러' 19.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 중 1500 달러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7.9%를 차지했다. 이 중 러시아(35.0%)와 중국(20.0%) 국적의 여행객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여행 중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국적의 여행객들의 경우 82.3%가 500 달러 이하의 여행비용을 사용해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 중 가장 많이 구입한 쇼핑품목(중복응답)은 '의류'가 5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49.1%)과 '식료품'

(33.5%)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일본 여행객의 경우 '의류'(57.3%), '화장품'(55.7%), '식료품'(55.3%) 순으로 쇼핑을 했으며, 대만 여행객은 '시계'(73.9%), '의류'(71.0%), '신발류'(60.9%) 순이었다. 중국 여행객들의 경우 화장품(56.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과 태국 여행객들의 경우 각각 70.9%, 65.7%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쇼핑한 품목으로 꼽았다.

여행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불과 3.3%만이 한국 여행에 불만족 했다는 응답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베트남 여행객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5.8%가 불만족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여행 기간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 '음식'(26.9%)과 '쇼핑'(21.9%)을 꼽았다.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의사소통'(40.5%)과 '높은 여행경비'(11.1%)를 선택했다.

한국 여행과 관련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28.9%)와 '인터넷'(23.0%)에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소개'(17.4%)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1.2%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보통(6.8%), 재방문 의사 없다(0.9%)가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필리핀 국적의 여행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77.7%로 가장 낮았다. 재방문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55.6%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제주도도 32%를 차지했다.

기아차, K7 프리미어에 '카투홈'·'자연의 소리' 기능 적용

운전 중 간단한 음성명령으로 홈IoT 기기 제어 가능



기아자동차는 준대형 세단 K7 페이스리프트 모델 'K7 프리미어(PREMIER)'에 '카투홈(Carto Home)'과 '자연의 소리' 기능을 탑재한다고 9일 밝혔다.

카투홈은 자동차 안에서 가정의 ▲조명 ▲플러그 ▲에어컨 ▲보일러 ▲가스차단기 등의 홈 IoT(사물

인터넷)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아차는 카투홈 기술 구현을 위해 KT, SK 텔레콤, 현대건설 하이오터(Hi-Ot), 현대오트모터 등과 제휴해 자사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UVC(유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보의 스마트폰 앱에서 홈 IoT

서비스 계정을 연동하면 카투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AVNT 모니터의 카투홈 메뉴에 들어가 홈 IoT 서비스에 연동된 가전기기를 등록하면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운전 중에는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도 카투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카투홈, 가스 차단기 잠금"이라고 명령하면 집에 있는 가스 밸브가 잠기는 식이다.

자동차에서 다양한 IoT 기기들을 묶어 일괄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외출 모드'와 '귀가 모드'도 제공한다. 외출과 퇴근 각 모드 별로 홈 IoT 기기 작동을 설정해 놓으면 한번의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설정된 기기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K7 프리미어는 카투홈 기능과 함께 홈투카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 설치된 KT 기가지니(GiGA Genie), SK 텔레콤의 누구(NUGU) 등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지니아 시동 켜줘", "히리아 내 차 온도를 24도로 맞춰줘" 등의 명

령을 하면 차량의 ▲시동 ▲공조 ▲문잠금 ▲비상등 ▲경적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홈투카 기능은 지난해 출시된 스포츠지 더 볼드 모델에 적용된 바 있다.

기아차는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 카투홈과 홈투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유료 서비스 가입자들도 홈투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7 프리미어에는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음원을 활용한 '자연의 소리'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다.

AVNT 모니터를 통해 작동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은 ▲생기 넘치는 숲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K7 프리미어에는 ▲내비게이션 자동무선 업데이트 ▲카카오 자연어 음성인식 ▲전후방 카메라 영상 녹화해 AVNT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빌드인 캠' ▲등급 최초로 적용되는 12.3인치 '대화면 와이드 AVNT' 등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기아자동차는 K7 프리미어의 사전 계약을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다.

뉴시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신청 저소득층에 '가중치' 부여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는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부모 가족·차

상위계층 가점 부여 등을 포함하는 '기준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 삭제 ▲소득 증빙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자산기

준을 기존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기존 규정을 개선했다.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더 시급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뉴시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